

宗教 定義의 批判 (八)

哲學博士 金永羲

眞理의 根本 主體와 內的 調和가 됨을 宗教는 渴望한다. 비록 抑鬱과 不公平이 ատս나 終當善이 勝利하리라고 信仰하고 人生觀을 가르침보다 宗教는 善에 動力을 주는 그 價値의 根本 主體인 最高 實在와 調和하려는 것이다. 藝術의 美만큼 우리의 삶을 高潔케 하는 것이 업다는 것 以上으로 한 거름 더나가서 美의 主體될 그 最高 實在와 한마음으로 調和되려는 바이다. 사람의 가장 값있는 것은 쓰거운 사랑이라는 愛至上主義보다 한거름 더 나가서 사랑의 原動者인 實在에서 한업시 흘르는 사랑의 샘을 마음껏 마심을 宗教는 經驗하려는 바이다.

有限한 사람으로 無限한 그 實在, 虛僞에 害메이는 者로 □理의 主體인 그 實在, 不滿과 醜惡에서 살면서 美의 主體인 그 實在, 乾燥한 이 生에 不滿을 느끼면서 사랑의 根源인 그 實在와 神秘的 經驗을 渴望하는 것이 宗教生活의 큰 部分이겠다. 宗教는 이 不滿과 좀 더 큰 自我의 發見을 渴望함에서 起因된다. 卽 自己가 가지고 있는 以上의 價値를 가진 그 主體者에게서 自我의 權力을 增大시키려는 渴望에서 起因된다. 이는 엇더한 局部的 價値를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主體者인 그 實在를 願함이다.

이 神秘的 經驗이야말로 宗教의 肉血的 要素이겠다. 이 經驗이 宗教와 道德을 宗教와 다른 價値를 區別시키는 點이다. 最上 實在와 調和되는 그 情緒는 宗教生活의 獨特한 것이다. 누가 한 벗을 사랑한다면 그이의 知識 或은 그이의 어엿쁨, 그이의 머릿빛, 그이의 姿態, 그이의 눈빛, 그이의 몸매, 或은 그이의 말을 사랑하는 것이 當然하다. 그러나 그이가 眞正 그 벗을 사랑하면 그이의 몸매와 눈빛, 그이의 姿態와 머릿빛, 그이의 어엿쁨과 말씨, 그이의 知識과 技能의 主에 者인 그 벗 自身을 사랑하는 것과 가티 宗教 亦是 慈悲, 博愛, 平和, 好意 모든 眞, 善, 美의 價値를 尊重히 理想 삼는 것이 아니라 慈悲, 博愛, 平和, 好意의 모든 價値의 主體者를 崇拜하는 것이다. 그

主體者와 調和되는 情緒를 渴望하는 것이다.

이것이야말로 뜨거운 바다 속 自我를 찌서낸다는 붓는 불김에 自我의 가슴을 뜨겁히는 宗教生活의 經驗이다. 고요한 새벽녘 구비구비진 山들이 반짝이는 별들 아래 깃흔 잠 속에 든 것 가뜰 쎄 호을로 이어나서 소리 업는 듯한 宇宙에서 들리는 듯한 그 實在者의 낮을 對하는 듯이 神秘的 經驗을 맛볼 쎄 쓸 압혜 더 업는 고힌 빛으로 피여잇는 그 한 꽃송이를 보고 그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그 實在와 調和가 될 쎄 가지는 그 經驗을 宗教는 □□으로 녀이게 된다.